

# DBpia

## 圓光을 통해서 본 토착신앙의 불교 습합과정

Assimilating process of Buddhism of shamanism looked over through  
Wonkwang

---

저자 (Authors)	金皓東 Kim, Ho-Dong
출처 (Source)	<a href="#">신라사학보</a> , (3), 2005.4, 21-45 (25 pages) <a href="#">SILLASAHAKPO</a> , (3), 2005.4, 21-45 (25 pages)
발행처 (Publisher)	<a href="#">신라사학회</a> The Society for the Studies of Silla History
URL	<a href="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2442165">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2442165</a>
APA Style	金皓東 (2005). 圓光을 통해서 본 토착신앙의 불교 습합과정. 신라사학보, (3), 21-45.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10/01 14:03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 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圓光을 통해서 본 토착신앙의 불교 습합과정

金 皓 東\*

I. 머리말

III. 맺음말

II. 토착신앙의 세계에서 佛의 세계로

## I. 머리말

삼국시대 불교사를 논할 때 가장 주목받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은 圓光이 아닌가 한다. 그의 중국 구법활동 이후 신라 승려들의 본격적인 중국 유학이 이루어졌던 점이나, 화랑에게 세속오계를 제시하여

\*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상임연구원

주요 논저 : 《고려 무인정권과 명학소민의 붕기》(공저), 다운샘, 2004 ;  
《고려 무신정권시대 文人知識層의 현실대응》, 경인문화사, 2003 ; <삼  
국시대 동해안 지역 사원 창건연기설화의 역사적 의미> 《民族文化論  
叢》, 2004 ; <원간섭기 영남지역의 유불계의 동향> 《한국중세사연구》  
9, 2000 ; <『禪門拈頌』과 眞覺國師 慧諶> 《民族文化論叢》 18·19,  
1998 ; <高麗 武臣執權下에서의 慶州民의 動態와 新羅復興運動> 《民  
族文化論叢》 2·3, 1982 외 다수

보살계와 세속계를 구분하였던 점, 고구려와 백제를 치기 위해 결사표를 지었다는 점등에서 그의 생애와 불교사상에 관한 많은 연구가 있었다. 이것은 사료의 양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삼국시대 승려 가운데 가장 많은 자료를 전해주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원광 연구의 기본 사료로 이용되는 것은 《三國遺事》 권4, 義解5 圓光西學條이다. 일연은 여기에서 《續高僧傳》 권13의 新羅皇隆寺釋圓光條의 내용을 옮겨 싣고, 그 뒤에 東京安逸戶長인 貞孝 집에 보관된 ‘古本 《殊異傳》’의 내용과 《三國史記》 卷45, 列傳5 貴山の 내용 일부를 싣고 난 후 일연 자신의 견해를 밝힌 ‘議’ 및 ‘讚’을 싣고 있다. 《續高僧傳》의 기록은 원광이 중국에 유학하여 출가한 후의 여러 불교 경전이나 교학을 이해하는 과정과, 귀국후의 교화활동에 관해 주로 언급하고 있다. 이에 반해 ‘古本 《殊異傳》’은 원광이 일찍 출가하여 행한 신이한 수도생활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다. 지금까지 원광의 생애와 사상을 논한 연구들은 주로 《속고승전》의 내용을 주로 하면서 《속고승전》과 《수이전》에서 달리 기록된 부분, 즉 그의 출신 및 생존연대와 유학시기를 논하면서 부수적으로 후자의 기록을 논하고 있다.<sup>1)</sup> 그러나 원광의 부도가 자신이 처음 출가하여

1) 원광에 관한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다.

李基白, <圓光과 그의 思想> 《創作과 批評》 10, 1968 : 《新羅思想史研究》, 일조각, 1986 ; 鄭永鎬, <원광법사의 삼기산 금곡사> 《史叢》 17·18합, 1973 ; 鄭柄朝, <원광의 菩薩戒사상> 《한국고대문화와 인접문화와의 관계》 보고논총 81-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 鄭柄朝, <圓光法師－統一신라의 이념 세운 고승－> 《한국불교인물사상사》, 불교신문사, 1990 ; 신종원, <원광과 진평왕대의 점찰법회> 《신라초기불교사 연구》, 민족사, 1992 ; 崔鉛植, <원광의 생애와 사상－삼국유사 원광전의 분석을 중심으로－> 《泰東古典研究》 12, 1995 ; 朴美先, <신라 원광법사의 여래장사상과 교화활동> 《한국사상사학》 11, 1998 ; 박광연, <원광의 점찰법회 시행과 그 의미> 《역사와 현실》 43, 2002 ; 金杜珍,

불법을 공부하였던 바로 그 자리, 삼기산사 자리에 세워졌다고 하는 것은 삼기산사에서 불법을 익히던 원광의 모습을 그려낸 《수이전》의 기록이 신빙성이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수이전》에 실려 있는 내용은 그간 신라인들을 종교적으로 장악하고 있었던 토착신앙과, 거기에 기대었던 신라인들이 불교 공인 이후 어떻게 불교를 받아들이게 되는가를 알려주는 좋은 자료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천착할 필요가 있다.

고구려와 백제 양국은 불교 공인과정의 순조로웠던 반면 신라는 귀족층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이차돈의 극적 순교의 과정을 통해 어렵게 공인될 수 있었다. 그 원인의 규명을 위해 불교 공인 이전의 巫와 日官과 佛僧과의 충돌을 통해 샤머니즘과 불교의 대립 갈등을 다룬 연구는 있었지만 불교 공인 이후의 토착신앙과 불교와의 관계를 다룬 연구는 별반 없었다. 다만 이기백이 <圓光과 그의 思想>에서 원광과 무격신앙과의 결별을 다룬 바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최근 김두진은 <圓光의 戒懺悔신앙과 그 의미>를 통해 “불교 공인 이후 원광이 활동하던 시기에 이르기까지 신라 사회에는 토착신앙과 불교신앙이 대립과 절충을 반복하고 있었다. 그런 속에서 원광은 정법불교 교학을 정립시키려 했다. 그러기 위해 원광은 주술불교를 배격하면서, 오히려 신라 토

---

<圓光의 戒懺悔신앙과 그 의미> 《新羅史學報》 2, 2004.

위의 글들은 주로 원광의 생애와 그의 사상을 다루고 있다. 그의 생애를 다루면서 다음의 두 가지 문제에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첫째, 《속고승전》에서 원광이 박씨라고 한데 반해, 수이전에서는 설씨라고 하였기 때문에 그의 출신이 어디에 속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대체로 이에 대해서는 설씨라고 보고 있다. 둘째, 《속고승전》과 《수이전》이 중국에 유학한 시기 등의 연대기상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밝히고자 하였다. 반면 원광의 사상에 대해서는 주로 《속고승전》을 갖고 그의 사상을 조명하고 있다. 그것은 상대적으로 《수이전》의 경우 이에 관한 언급이 없기 때문이다.

착신앙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가졌다”고 하였다.<sup>2)</sup> 그러나 전자의 연구는 토착신앙과 불교가 갈등과 대립을 하면서 ‘결별’과 ‘배격’의 수순을 통해 도태되어 갔다는 측면만 너무 부각되었다. 후자의 경우 주술불교 역시 무격으로서 간직했던 治病·除厄의 주술을 매개로 불교에 가탁한 것이라고 할 때 그것 역시 토착신앙의 하나였다는 점이 간과된 것이 아닌가 한다.

법흥왕에 의해 불교가 공인된 후 왕즉불을 표방하면서 불교는 왕실 내지 국가불교적 성격을 지니면서 왕권강화의 이데올로기로서 기능하였다. 당시의 신라인, 그리고 토착신앙의 경우 이 거대한 흐름에 저항하기보다는 불교를 하루 빨리 익혀야만 한다는 대명제를 갖고 있었다. 이 시기는 무격 등의 토착신앙이 불교에 대결하는 단계가 아니라 불교에 압도된 채 각기 불교를 체득하여 생존의 길을 찾고자 하는 몸부림을 보여주는 단계이다. 그러한 몸부림이 어떤 경우에는 주술불교로서, 혹은 원광과 같이 중국유학으로, 혹은 삼기산신처럼 부처의 하위신으로 변신하기도 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고는 불교에 의해 토착신앙을 결별하고 배격해나간다는 시각 보다는 토착신앙이 불교를 통해 어떻게 자구의 길을 모색해나가는가를 추적해보기로 한다.

## II. 토착신앙의 세계에서 佛의 세계로

### 1. 원광 출가를 통해서 본 토착신앙의 불교 대응 양태

《속고승전》에 의하면 원광의 西學 동기는 문장의 빛남이 三韓에 떨쳤으나 박학하고 넉넉함이 중원에 부끄러웠으므로 발분하여 25세

2) 金杜珍, <圓光의 戒懺悔신앙과 그 의미> 《新羅史學報》 2, 2004, 89쪽.

때 배를 타고 金陵에 이르렀고, 불교에의 귀의는 중국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밝히고 있다.<sup>3)</sup> 이에 반해 東京安逸戶長인 貞孝 집에 보관된 古本 《殊異傳》 원광법사전에 의하면 중이 되려고 불법을 배우던중 三岐山에서 수도하다가 神의 권고에 따라 중국에 가게 되었다고 한다. 이에 관한 자료를 검토해보기로 한다.

처음에 僧이 되려고 佛法을 배우던 중, 나이 삼십에 한가한 곳에서 수도하려 하여 三岐山에 홀로 거주하였다. 그 후 4년에 한 比丘가 와서 그 근처에 따로 절[蘭若]을 짓고 있는 지 2년이 되었다. 그 위인이 강맹하여 呪術을 좋아 닦았다. 法師가 밤에 홀로 앉아 誦經할 때, 홀연히 한 신이 그 이름을 부르며 “옳고도 옳다, 그대의 修行이야말로! 무릇 수행자는 많지만 法대로 하는 자는 드물다. 지금 이웃에 있는 비구를 보니 呪術을 급히 닦으려 하지만 얻는 바는 없다. 그 떠드는 소리가 남의 靜念을 방해할 뿐이다. 또 그 처소가 나의 행로를 방해하니, 매번 지나다닐 때마다 미운 마음이 든다. 法師는 나를 위하여 그에게 말하여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하라. 만일 오래 머무른다면 아마 내가 갑작스럽게 죄업을 저지르지도 모른다”고 하였다. 이튿날 법사가 가서 말하기를 “내가 어젯밤에 神語를 들으니 비구가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겠다. 그렇지 아니하면 다른 재앙이 있으리라” 하였다. 중이 대답하되 “修行이 도저한 이도 마귀에게 홀리는가, 법사가 어찌 狐鬼의 말을 근심하는가?”라고 하였다. 그날 밤에 神이 또 와서 이르기를 “앞서 내가 말한데 대하여 비구가 무엇이라고 대답하였는가”라고 물었다. 법사가 神의 노기를 두려워하여 “아직 말하지 못하였다”고 답하면서 “만일 굳이 말한다면 어찌 감히 듣지 않겠는가”라고 하였다. 神이 가로되 “내가 이미 모두 들었다. 법사는 어찌서 보태어 말을 하느냐, 다만 잠자코 내가 하는 바를 보라”고 하고 갔다. 밤중에 震雷같은 소리가 났었다. 그 이튿날 가보니 산이 무너져 비구가 살던 절을 묻어 버렸다. 神이 또한

3) 《三國遺事》 권4, 義解5 圓光西學. “愛染篇章 章獵玄儒 討讎子史 文華騰翥於韓服 博瞻猶愧於中原 遂割略親朋 發憤溟渤 年二十五 乘舶造于金陵 有陳之世 號稱文國 故得諮考先疑 詢猷了義 初聽莊嚴旻公弟子講 素靄世典 謂理窮神 及聞釋宗 反同腐芥 虛尋名教 實懼生涯 乃上啓陳主 請歸道法 有勅許焉”

와서 말하되 “법사가 보니 어떠하냐?” (원광이) “보고 매우 놀랐다”고 하였다. 神이 가로되 “내 나이 3,000년에 가깝고 神術이 가장 壯하다. 이만한 일은 적은 것이니 어찌 놀랄 거리가 되랴. 또 장래의 일도 알지 못하는 것이 없고 天下의 일도 통달치 못함이 없다. 지금 생각하건대 법사가 이곳에 있으면 自利를 위한 수행은 행하지만 利他를 행하는 공덕은 없을 것이다. 현재에 이름을 높이 들어내지 않으면 미래의 勝果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 어찌 불법을 중국에서 배워 와서 이 나라의 혼미한 무리를 지도하지 않느냐” 하였다. (원광이) 대답하되 “중국에 道를 배우고자함은 본디 바라는 바이나, 海陸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자연 통하지 못할 뿐이라” 하니, 神이 중국에 가서 행할 계교를 상세히 알려주었다. 법사가 그 말대로 중국에 가서 11년을 머물면서 三藏에 널리 통하고 겸하여 儒術을 배웠다.

이 사료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이것을 신과 비구(무격)와의 대결, 즉 원광과 비구의 대결로서 보고, 원광이 승리한 것은 그가 무격신앙을 비판하고 이를 극복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sup>4)</sup>

- 4) 李基白, 앞의 글. 이기백은 比丘에 대해 기록상 비구라 하였고 또 蘭若에 있었다고 하였으나, 그가 주술을 닦았다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필시 巫覡이었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기록상으로는 신과 비구의 대결로 되어 있으나, 신의 의사는 원광을 통해서 발표된 것으로 되고 있으며, 따라서 결국 원광과 비구와의 대결이었다고 해서 잘못은 아닐 것이다”라고 하였다. 또 무격에 대한 원광의 대결을 그려내면서, 진골에 대한 육두품의 반항을 통해 진골과 불교와의 대립을 그려내고 있다. 이기백은 육두품을 설명하면서 신분적 권위에 집착하는 진골귀족에 대항하여 학문적인 식견에 의하여 국왕의 조언자가 됨으로써 왕권과 결합하였다고 하였는데(李基白, 《韓國史新論》 개정판, 一潮閣, 1984, 94쪽), 이 논리는 원광에 대한 논문에 그대로 관철되고 있다. 즉 무격과 결합한 진골귀족에 대해 불교를 익힌 원광, 즉 육두품의 반항을 그려냄으로써 국왕에 대한 조언자로서의 원광의 존재를 부각시키고 있다.

과연 원광으로 대표되는 육두품과 진골이 불교 대 무격의 대립관계로 형상화시킬 수 있을까? 불교 공인 이후 왕실이든 진골귀족이든 육두품이든 불교에의 귀의는 대세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렇다고 할 경우 골품제 하의 어느 한 골과 두품이 무교에 기운다거나 불교에 기운다거나 하

그와 달리 이것을 원광과 주술승의 대립으로 보면서 원광의 승리는 불교가 주술불교의 신앙을 배제하면서 정법을 추구해간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sup>5)</sup> 이를 염두에 두면서 위 사료를 자세히 검토해보기로 한다.

우선 이 사료에서 주목되는 것은 원광이 중이 되기 위해 불법을 배우다가 삼기산에 들어가 홀로 수도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때 원광이

---

는 뚜렷한 구별을 할 수 있는가가 의문이다.

또 이기백의 견해는 무격과 불교와의 대립, 갈등에서 전자가 후자에 의해 극복, 결별의 측면 만이 부각되고 상대적으로 수용, 습합되어가는 면이 무시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이기백은 비구를 무격으로 보았지만 이미 법흥왕대에 신라불교는 비구(구족계를 받은 완전한 승려)와 사미(견습승)를 구별할 정도의 높은 수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辛鍾遠, 《新羅初期佛教史研究》 민족사, 1992, 187~188쪽 참조) 무격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 5) 金杜珍, 앞의 글, 76~80쪽 참조. 김두진은 계참회신앙을 다루면서 ‘주술 불교신앙의 배격’이란 항목을 통해 본문에 제시된 사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삼기산에서의 원광의 행적을 원광과 주술승의 대립으로 보고, 원광은 정법을 펴는 착실한 수행과 함께 불교 교학에 정통하다고 하였다. 원광과 주술승의 대립은 삼기산신과 주술승의 갈등으로 표출되었고, 산신에 의해 주술승이 처단되었다고 하였다. 삼기산신은 신라 토착신앙에서 만들어졌던 음락이나 부족의 시조신으로 번개와 천둥을 관장하였는데 장래나 천하의 일에 모두 통달한 신술을 가졌다고 하였다. 또 삼기산신이 보여주는 함축적인 의미는 신라 진골귀족들이 고수하려는 토착적 전통과 맥이 닿는다고 하였다. 원광의 승리는 불교가 주술불교의 신앙을 배제하면서 정법을 추구해감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여기서 주술불교는 토착의 무격신앙이 흡수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불교 교학은 주술을 행하는 중을 배격한 반면 삼기산신의 신술을 허용하였다고 하여 신라의 정법불교와 신라의 토착신앙, 즉 삼기산산은 대단히 협조적이었다고 하였다.

이렇게 볼 경우 주술불교에 흡수된 토착의 무격신앙과 삼기산신의 토착 신앙 사이의 변별성, 나아가 무격신앙을 흡수한 주술불교와 토착신앙을 흡수한 정법불교의 차이점이 명료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처음 수도하던 곳이 사원의 형태를 완전히 갖춘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귀국 후 ‘전에 거주하던 삼기산사를 찾았다’고 한 것으로 보아 원광은 자신이 거주하였던 곳을 사원으로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sup>6)</sup> 따라서 그의 출가는 속고승전의 기록과는 달리 국내에서 이미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법흥왕대의 불교 공인 이후 진흥왕대에 오면 사원의 창건과 불교경전의 전래 및 승려의 출가 허용 등으로 인해 불교에 대한 관심은 크게 증대되었기 때문에<sup>7)</sup> 원광의 출가를 굳이 부인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sup>8)</sup>

- 
- 6) 《수이전》에서는 원광이 입산수도한 곳이 삼기산이라고 하였는데, 일연은 일연이 입산수행했다는 삼기산이 그의 부도가 있던 명활성 서쪽이라고 했다. 원광의 부도가 있었다는 금곡사지는 실제로 명활성 서쪽 삼기산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정영호, 앞의 글, 참조).
- 7) 신라의 경우 법흥왕 14년(527) 천경림에 흥륜사를 창건하고자 하였을 때 조신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힌 후 이차돈의 순교와 불교의 공인이 이루어져 우여곡절 끝에 진흥왕 5년(535)에 흥륜사의 창건이 이루어졌다. 신라 최초의 가람인 흥륜사가 낙성되자 진흥왕은 신라인의 출가를 허용하고, 양나라에서 입학승 각덕이 불사리를 가져오자 백관으로 하여금 그것을 흥륜사 앞길에서 맞도록 하였다. 그리고 고구려승 혜량을 승통으로 임명하였다. 혜량은 인왕백고좌와 팔관재를 처음으로 시행하였다. 또 진흥왕 27년에는 黃龍寺와 祇園·實際寺가 낙성되었다. 동왕 25년에는 陳에서 釋氏經典 1,700여권을 전해왔으며, 37년에는 입진구법승 安弘이 귀국하여 楞伽經·勝鬘經 및 佛舍利를 바쳤다(고익진, 앞의 책, 40~43쪽).
- 8) 《속고승전》에 의거해 중국에서 불법을 익혔다고 보는 경우, 삼기산에서의 원광의 행적을 신술을 닦는 단계로 보기도 한다(정병조, 앞의 글, 18쪽). 더 적극적인 해석은 중국에 유학하기 이전의 행적이 아니라 중국에서의 행적이 공간이 변형된 채 기록된 것이고, 삼기산 지역에서 활약했던 일본의 행적 중 일부가 원광의 행적으로 변형되어 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도 본다. 그 근거로 전자의 경우 《속고승전》에서 원광이 출가한 후 《성실론》과 《열반경》을 비롯하여 여러 경론들을 두루 공부하던 중 선정을 닦기 위하여 호구산에 들어가 속세와의 인연을 완전히 끊고 수행에 힘썼다고 한 기록이 《수이전》에서 원광이 출가한 이후 고요한

불교는 동북아시아 공통문자인 한자를 구사한 문화적 보편성 지니면서 고등종교, 세계성을 확보한 선진문화의 잣대였다. 불교는 현세에서 복을 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과 내세에 이르는 길을 소상하게 제시하면서, 생사를 뛰어넘는 가르침과 장엄한 의식을 통해 무력 등의 토착신앙에 기반한 기존의 사조를 압도하였다. 더욱이 신라는 제정이 분리되지 못한 단계에서 불교가 공인되었으므로 불교는 정교일치의 형태로 나타났다. 국왕은 불교의 수장으로서 불교로 윤색된 진종설화를 바탕으로 왕족을 미화함으로써 왕권강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부족간에 달리하였던 개별신앙을 축소시키고 단일한 종교사상으로 귀일시킴으로써 사상적 통일을 이루었고, 이것은 곧 고대국가의 확립과 강화를 가져왔다. 불교가 수용되고 공인되기 이전까지 신앙면에서 각 부족이 성장한 지역을 토대로 조상신의 기원과 관계 있는 산천승배나 조상승배에 기대었던 제 세력들은 이제 왕즉불, 혹은 왕즉

---

곳에서 수도하기 위하여 깊은 산속을 찾았다는 것과 일치한다는 것이다. 또 《속고승전》에서는 그후 원광이 산 아래에 살던 신도의 청에 의해 다시 속세로 나와 중생의 교화에 힘썼다고 한 기록이 《수이전》에서 자리의 수행에서 벗어나 이타의 실천으로 나가라는 산신의 충고에 따라 산을 벗어났다고 한 것과 흡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에는 원광이 머문 운문사 지역에서 원광의 전승을 필요로 하는 과정에서 그곳에 전해지던 보양화상의 전승이 원광의 행적으로 변형된 것과 비슷하게 원광의 부도가 있는 삼기산 지역에 원광과 관련된 전승이 요구되었는데, 같은 지역에서 활약했던 밀본의 행적 중의 일부가(주술승과의 대립을 지칭함) 원광의 행적으로 변형되어 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보양화상의 행적을 원광의 행적으로 변형된 것은 각혼의 《해동고승전》에서 비롯된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이미 일연 스스로 그 잘못을 바로잡아 두었다. 그런 점에서 원광의 중국 행적이 삼기산의 행적으로 변형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 한다. 그리고 원광의 부도가 삼기산에 있었던 것은 아마 원광이 처음 출가하여 불법을 익힌 인연 있는 곳이 기 때문일 것이다.

보살, 전륜성왕을 내세우며 하향식으로 확대되어오는 불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중앙귀족, 혹은 관료의 지위를 유지해나가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이들로부터 그간 신봉되어왔던 족적·부족적, 소국단위의 신화체계 및 무격 등의 토착신앙마저도 불교에 압도된 채 자신의 방향을 설정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직면하였다. 그 과정에서 불교이전의 신화는 불교의 종속적 차원으로 흡수되었다. 오늘날 사원에서 칠성각·삼성각·산신각 등을 통하여 볼 수 있듯이 불교는 토착신앙을 이단으로 몰아서 배척하여 소멸·파괴시키지 않은 채, 기존의 세계관을 축소시키면서 흡수하여 나갔다. 이러한 시각을 갖고 위 사료를 음미해보기로 한다.

위 사료에 나오는 주술승이나 삼기산신이나 원광 모두는 무격이 불교에 대결하거나 하는 단계가 아니라 불교 공인 이후 국가불교로서, 정교일치의 형태로 확산되어오는 불교에 압도된 채 각기 불교를 체득하여 생존의 길을 찾고자 하는 몸부림을 보여주는 단계이다.

불법을 익히기 위해 30살 무렵 삼기산신을 모시는 성역에 들어가 6년 동안 경전을 익히고 있었던 원광은 애당초 삼기산신이 원광에게 말한 것처럼 현재에 이름을 높이 들어내어 미래의 勝果를 거두고 싶은 출세의 욕망을 갖고 있었다. 그의 나이 30에 삼기산으로 들어왔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원광은 육두품으로서 유학을 익혀 관료에로의 길을 모색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 유학이 하나의 학문, 하나의 관직 진출의 길로 확립되지 못하였기 때문에<sup>9)</sup> 유학을 통한 관직으로의

9) 삼국통일을 전후한 시기 정교분리가 이루어지면서 불교가 정치로부터 한 걸음 물러서자 유학은 관제 형성과 통치제도의 정비에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면서 관료 진출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강수에게 그의 부친이 佛道를 배울 것인가 儒道를 배울 것인가를 묻자 “불도는 세상 밖의 교(世外之敎)라고 합니다. 저는 世間人이니 어찌 불도를 배우겠습니까? 儒者의 도를 배우기를 원합니다”라고 하고 스승에게 나아가 《孝經》·《曲禮》·

진출과 출세는 골품제의 제약아래 쉽지 않았다.<sup>10)</sup> 원광은 정교일치의 상황 하에서 출세의 방편이 곧 불교를 익히는 것이었다는 판단 하에 승려가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광이 삼기산에 들어온 지 4년 후에 삼기산에 들어와 蘭若를 짓고 2년이나 근처에 거주한 比丘는 종래의 무격으로서 불교에 압도된 채 생존을 위해 머리 깎고 삼기산신이 거쳐하던 성스러운 지역 주변에 사원을 짓고 주술승으로 변신하여 행세하면서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전통적 무교의 경우 자연의 지배력과 사후의 영혼이 신격화된 다양한 신들이 등장하고 있다. 불교가 전래할 무렵 태양신에서 발달한 하늘임[天帝]과 명산대천의 신령들 또한 중요한 제사의 대상이었다. 무교의 경우 천신이나 악귀는 인간을 지배하고 상벌하는 절대타자적 존재이며, 천재지변이나 질병·사망과 같이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괴로움에 부딪혔을 때 신령의 힘을 빌려는 점복·주술·기도·제사와 같은 종교적 행동을 한다. 그에 반해 불교는 천신이나 악귀가 아무리 위대한 힘을 가졌다해도 업보적인 존재에 불과하며, 재난 역

---

《爾雅》·《文選》을 읽었다(《三國史記》 권46, 열전6 強首)는 것이나 설총이 처음에 桑門(중)이 되어 佛書에 널리 통하였으나 얼마 후에 본색으로 돌아와 小性居士라고 自號하였다(《三國史記》 권46, 열전6 薛聰)는 것은 이제 유학이 하나의 학문의 길,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한 관료의 길이 확립되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말이다(김호동, <신라말 고려초 유교이념의 확대과정> 《한국중세사연구》 18, 2005년 4월 간행예정). 그러나 그 전 단계 정교일치의 상황하에서 유학은 독자의 길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 10) 662년(진평왕 43)에 薛闕頭가 “신라가 사람을 쓰는데 골품으로 논하니 만일 그 족속이 아니면 큰 재주와 뛰어난 공이 있더라도 그 한계를 넘지 못한다”고 하면서 중국으로 들어갔다는 기록(《三國史記》 권47, 열전7 薛闕頭)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시 악업을 청산하고 선업을 행하려는 懺悔, 授戒·施與, 수행[止觀]을 행하는 것이다. 신라 초전기 불교에서 전통적 무교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業說에 바탕한 因果禍福說이 적절히 행해졌음을 감안할 때<sup>11)</sup> 주술을 행하는 무격은 가장 큰 타격을 입었고, 일부는 불교에 대해 저항하는가 하면, 일부는 불교에 가탁하여 자신의 위치를 유지시켜 가고자 하였을 것이다. 무격에서 불교에 가탁한 주술승은 불교의 교리를 익히기보다는 무격으로서 갖고 있었던 治病, 除厄을 위한 주술을 행함으로써 신령인 삼기산신의 靜念을 방해하고 미운 마음을 일으킬 정도로 시끌벅적할 정도로 나름대로 신도를 확보하였을 것이다. 이에 주술승은 삼기산신을 한갓 ‘狐鬼’로 능멸할 정도였다.

삼기산신은 신라 토착신앙에서 받아들여졌던 읍락이나 부족의 시조신으로서 번개와 천둥을 부리며 장래나 천하의 일에 모두 통달한 신술을 가졌다. 그러나 불교에 압도된 채 그 영역의 한 부분에 무격출신의 주술승이 들어와 사원을 지어 등지를 틀었고, 또 불법을 익히기 위해 원광이 들어와 거처하고 있었다. 번개와 천둥을 부리며 장래나 천하의 일에 모두 통달한 신술을 갖고 있었지만 불교에 가탁한 주술승의 주술에 신도들이 몰려들면서 그 신술의 영험을 발휘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이에 주술승을 내몰고자 하였지만 불교의 위력 앞에 움추린 채 미워할 뿐 스스로 주술승을 구축하지 못하고 정통 불법을 익힌 원광의 힘을 빌어 그를 내몰고자 하였다.

불법을 익히고자 하는 원광이나 무격 출신의 주술승이 삼기산신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삼기산신이 불법으로의 길을 모색하려는 한 방편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삼기산신의 의도와 달리 무격은 불교에 가탁하여 주술을 통해 많은 신도를 확보하면서 삼기산신을 한갓 ‘狐鬼’로 능멸하자 양자의 대립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11) 高翊晉, 《韓國古代佛教思想史》, 동국대 출판부, 1989, 30~37쪽 참조.

보아야 할 것이다.

원광은 삼기산에 들어와 홀로 경전을 읽으면서 자기 수행에 전념하였다. 삼기산신이 원광의 수행이 옳다고 하였지만 실상 6년 동안 원광은 별다른 깨침을 얻지 못한 채 주술을 행하는 중에 의해 크게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다.<sup>12)</sup> 삼기산신이 지적한 것처럼 원광은 6년 동안 삼기산에 머물면서 경전을 통해 自利를 위한 수행은 행하였을지언정 利他를 행하는 공덕을 이루지 못함으로써 방황하고 있었다. 그 방황의 한 원인은 삼기산신과 주술승과의 대립으로 나타나는(원광 내면에서 갈등하는) 원광의 수행방법과 주술승의 수행법이였다. 비록 주술승은 주술에 의지하였지만 중생을 위한 이타의 공적은 나름대로 있었기 때문에 시끌벅적한 분위기였다. 홀로 정법을 펴는 착실한 수행과 함께 불교 교학을 익히고자 하였던 원광은 정념의 방해를 받았고, 삼기산신에 의해 주술승이 죽는 그 순간 이타의 공적을 익혀야 한다는 것을 자각하였다. 그 방법이 중국유학을 통한 도의 체득이였다.

토착신앙의 한 축인 삼기산신은 그 성역 안에 들어온 불교를 익히고자 하는 원광과 무격출신의 주술승을 바라보고 있었다. 불교로부터 주도권을 빼앗긴 삼기산신은 주술승의 수행이 미구에 불교로부터 배척받음을 분명히 인식하였다. 그는 주술승이 행하는 수행의 한계를 철저히 인식하고 이를 배격하고 원광의 수행방법이 옳다고 하면서 주술승의 주술능력으로 인해 마음이 흔들리는 원광을 위해 주술승을 내

12) 김두진은 삼기산에서 원광은 삼기산신과 특별한 인연을 맺는 것을 제외하면 정법을 펴는 착실한 수행과 함께 불교 교학에 정통하였는데, 그의 수행이 자리행을 닦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소승율을 닦았음이 분명하다고 하였다(김두진, 앞의 글, 64~65·76쪽). 최치원도 소승불교의 전래가 선행하였다(최치원, <智諱和尚碑銘并序> 《崔文昌侯全集》)고 한 것으로 보아 원광이 삼기산에서 닦은 자리행은 소승불교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 것을 권하였다. 원광 스스로 그것을 이루지 못하자 신술을 동원해 하룻밤 사이에 蘭若를 무너뜨리고 난 후 자리행 위주의 소승율에 머문 원광의 수행의 잘못을 지적하였다. 당시 불교계가 자리행의 소승율로 수행을 하는 한 토착신앙이 그 속에서 생존의 길을 모색할 수 없음을 자각하고 “법사가 이곳에 있으면 自利를 위한 수행은 행하지만 利他를 행하는 공덕은 없을 것이다. 현재에 이름을 높이 들어내지 않으면 미래의 勝果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 어찌 불법을 중국에서 배워 와서 이 나라의 흥미한 무리를 지도하지 않느냐”라고 하여 이타행의 대승불교를 익힐 것을 제시하였다. 또 당시 신라사회가 정교일치의 상태에서 불교가 국가(왕실)불교의 특성을 지니면서 현실정치적 장에서 기능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타행의 대승불교와 아울러 儒術, 즉 유학을 익히도록 계교를 원광에게 일러주었다. 그것은 곧 토착신앙에 기반을 갖고 있으면서 유학을 바탕으로 하여 정치적 출세를 할 때 피했던 원광이 삼기산에서 6년간 불교를 익히면서 번민하면서 얻어낸 결론이기도 하였다.

## 2. 귀국 후 행적을 통해본 토착신앙의 불교에의 습합과정

《속고승전》에는 원광이 중국에 유학하여 출가한 후의 여러 불교 경전이나 교학을 이해하는 과정에 대해 기술되어 있다. 이것은 본고의 주제와 크게 관련되지 않으므로 생략하고 고본 《수이전》을 통해 토착신앙이 어떻게 불교에 포섭 용해되어가는가를 원광을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진평왕 22년 庚申[三國史에는 明年辛酉에 왔다 하였다]에 법사가 돌아올 행장을 차리어 중국 朝聘使를 따라 귀국하였다. 법사는 神에게 감사코자, 전에 거주하던 三岐山寺에 갔더니 밤중에 신이 또 와서 이름을 불러 말하기를 “海陸의 도정을 어떻게 갔다 왔느냐”고 하였다. (원광이) 대답하되 “신의 홍은을 입어 평안히 도착하였소이다” 신이 말하되 “나도 또한 神(師의 잘못인듯)에게 戒를 받는다” 하고 生生相濟의 約을 맺었다. 또 법사가 “神의 眞容을 볼 수 있겠습니까”라고 청하자, 神이 “법사가 만일 내 모양을 보고자 할건데 내일 東天가를 바라보라”고 하였다. 법사가 이튿날 바라보니 큰 팔뚝이 구름을 뚫고 하늘 끝에 접하여 있었다. 그날 밤에 신이 또한 와서 “법사는 내 팔뚝을 보았느냐”고 묻자 “이미 보았는데 매우 기이하더이다”라고 답하였다. 이로 인하여 속칭 臂長山이라고 하였다. 또 신이 이르되 “비록 이 몸이 있다 하여도 無常한 害[死]를 면치 못할 것이므로 내가 머지않아 이 몸을 그 고개에 버릴 터이니 법사는 와서 길이 가는 魂을 보내 달라” 하였다. 기약한 날을 기다려 가보니 漆빛 같이 검은 늙은 여우 한 마리가 있어 혈떡이고 숨을 쉬지 못하다가 곧 죽었다.

11년 만에 중국 유학에서 돌아온 원광은 삼기산신을 찾아가 감사의 뜻을 표했다. 원광이 중국 유학을 통해 삼기산에서의 자리행의 소승 율에서 벗어나 이타행의 대승불교를 익혀 귀국함으로써 삼기산신의 토착신앙은 보살계를 받을 수 있었고,<sup>13)</sup> 生生相濟의 언약을 통해 불교 속에 자리잡을 수 있었다. 이것은 토착신앙이 불교계에 압도되면서 대결의 과정 속에서 도태되어 가는 과정이 아니라 소승불교에서 대승불교로의 전환을 유도하면서 그 스스로 살길을 모색하여 나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비록 후대의 기록이지만 왕건이 지은 ‘開泰寺華嚴法會疏’를 살펴보면 불교에 녹아 내린 토착신앙의 모습이 보인다.

13) 김두진은 원광이 삼기산신에게 보살계를 내린 것에 대해 “보살계가 출가자의 수행을 위한 한정된 범위에서 벗어나, 재가 신도들에게까지 넓혀짐을 의미한다”고 하였다(김두진, 앞의 글, 67~68쪽).

제자(왕건)은 머리를 조아려 허공의 범계에 두루 계시는 十方의 三世一切 諸佛과 諸會菩薩. 羅漢聖衆 梵釋四王 日月星辰 天龍八部 岳鎮海瀆 名山大川 등 一切靈祇에 귀의합니다.<sup>14)</sup>

위에 나열된 諸佛로부터 山川에 이르는 다수의 명칭은 몇 가지 부류로 구분된다. 하나는 諸佛로부터 四王까지로 佛과 그 권속이며, 日月로부터 八部는 천상계에 존재하며 岳鎮으로부터 大川까지는 지상에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당시 時空을 초월한 佛과 그 권속, 그리고 천상의 神 및 地上的 神 등 세 가지로 줄여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佛을 우선으로, 다음에는 불교수용 이전의 자연신이 종속적인 차원으로 인식되고 있다.<sup>15)</sup> 그러한 습합이 삼기산신이 원광으로부터 보살계를 받기를 청하며 生生相濟의 언약을 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삼기산신과 원광의 관계를 통해 불교가 전통적 무교신을 배척했다기보다는 그 신이력을 신앙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수용하였음을 볼 수 있다.<sup>16)</sup> 삼기산신이 원광에게 중국유학을 권장하면서 한 말 가운데 “장래의 일도 알지 못하는 것이 없고 天下의 일도 통달치 못함이 없다”는 ‘神術’은 원광을 통해 점찰법회의 모습으로 변용되어 불교에 攝化되었다고 볼 수 있다. 원광이 귀국한 직후 가솔사에서 대중교화에 주력할 때 占察法을 사용하였다. 점찰법은 점복적 성격으로 인해 재래의 무격신앙과 관계되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하지만<sup>17)</sup> 점찰경은 如來藏思想을 대중적으로 교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중

14) 崔瀟, <開泰寺華嚴法會疏> 《東人之文》.

15) 許興植, <佛敎와 融合된 社會構造> 《高麗佛敎史研究》, 일조각, 1986, 14~15쪽.

16) 고익진은 전통적 하늘임이 이름만 帝釋으로 바뀌면서 제석신앙을 통해 그 신앙은 그대로 계승된다고 하면서 신라의 제석신앙은 전통적 巫敎神을 주로 ‘密敎的인 방향’에서 수용했다고 하였다(고익진, 앞의 책, 57~62쪽 참조).

국적 경전으로서 여래장사상에 입각하고 있는 《대승기신론》과 공통의 사상체계를 갖는 것이었다고도 한다. 특히 점찰에 임하기전 참회와 菩薩戒 受持라는 형식으로 철저한 믿음과 마음의 정화를 요구하고 있는 점에서 재래의 민간 占卜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며, 불교신앙의 생활화를 추구하는 성격이 강하였다고 한다.<sup>18)</sup> 이를 염두에 둘 때 삼기산신이 지닌 “장래의 일도 알지 못하는 것이 없고 天下의 일도 통달치 못함이 없다”는 ‘神術’, 즉 민간 占卜이 원광을 통해 불교적 점찰법으로의 길을 모색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원광은 출가 이전 삼기산신의 신술, 토착신앙을 깊이 믿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삼기산신이 원광에게 일러준 중국에서 행할 계교 가운데에는 삼기산신의 신술과 연결될 수 있는 불법의 공부내용이 포함되었을 것이며 그것이 곧 원광의 점찰법회를 통한 교화의 방법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삼기산신이 원광으로부터 보살계를 받고 生生相濟의 언약을 맺게되었다고 볼 수 있다.

삼기산신의 신술이 원광의 점찰법에 섭화됨으로써 보살계와 生生相濟의 언약이 이루어지자 그간 원광에게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삼기산신은 원광의 청에 의해 그 다음날 東天가에 구름을 뚫고 하늘 끝에 접하여 있는 큰 팔뚝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샤머니즘의 세계관에서 천상계, 지상계, 지하계를 연결하는 우주목, 世界樹로서, 천신이 하강하고 천신의 권능을 부여받은 샤만이 天界上昇을 하는 곳이었을 것이다. 팔뚝으로 모습을 보인 삼기산신이 그날 밤 다시 나타나 자신의 죽음을 예언하고 혼을 보내달라고 부탁하였고, 기약한 날 그 고개에 원광이 가보니 漆빛 같이 검은 늙은 여우 한 마리가 있어 혈떡이고 숨을 쉬지 못하다가 곧 죽었다. 이것은 삼기산신의 신술이 원

17) 이기백, 앞의 글.

18) 최연식, 앞의 글, 28~29쪽 및 신종원, 앞의 책 참조.

광의 점찰법에 섭화됨으로써 삼기산신은 원광, 즉 불교에 의해 혼이 거두어지고, 그 꺾테기는 죽어 가는 검은 늙은 여우 한 마리의 모습을 남긴 채 역사의 저편으로 퇴장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sup>19)</sup>

삼기산신의 신술이 원광의 점찰법회로 바뀌어가는 과정을 좀더 잘 드러내 주는 것이 《三國遺事》 권5, 感通<sup>7</sup> 仙桃聖母隨喜佛事條이다.

진평왕대에 比丘尼 智惠란 자는 賢行이 많았다. 安興寺에 살면서 새로 佛殿을 지으려 했으나 힘이 모자랐다. 꿈에 예쁜 仙女 모양을 한 여인이 珠玉으로 머리를 장식하고 와서 위로하였다. “나는 仙桃山 神母인데 그대가 불전을 지으려 하는 것이 기뻐서 金 10斤을 주어 돕고자 한다. 내 자리 밑의 금을 가져다가 主尊三像을 장식하고, 벽에는 53佛·六類聖衆 및 諸天神·五岳神君을 그려라. 해마다 봄·가을 두 계절의 10일에는 善男善女를 모아 일체 衆生을 위해 점찰법회를 베푸는 것을 恒規로 삼아라.” 지혜는 놀라 깨어나서는 무리를 거느리고 神祠 자리에 가서 황금 160냥을 캐어다가 불전공사를 마쳤는데, 모두 신모가 일러준 대로 하였다.

삼기산신과 원광과의 관계는 선도성모(산신)와 비구니 지혜로 대치된다. 전자에서 삼기산신이 원광에게 중국유학을 권고하고 중국에서 행할 계교를 일러준 것이 후자에서는 지혜가 절을 짓는 데에 神母가 재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바뀌어 나타날 뿐이다. 그리고 전자에서는 토착신앙이 불교에 섭화되면서 모색된 새로운 질서에 관한 언급이 없지만 후자에서는 민간신앙이 불교에 스스로 자리매김하는 모습이 잘

19) 이것은 宋 無門慧開의 無門關(1229)에 실린 公案 48則 중 <百丈野狐>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백장에게 한 노승이 찾아와, 자기는 因果에 떨어져서 500生 동안 여우의 몸을 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이것을 벗어날 수 있겠는가를 호소하였다. 백장이 “인과에 어두워서 안된다”고 대답하였다더니 그 노승은 비로소 여우의 몸을 여의었다고 고마워하며, 자기를 보통 스님들처럼 장사지내 달라고 하였다. 그를 화장하려고 뒷 산에 가보니, 다만 한 마리의 여우가 있을 뿐이었다.

드러난다. 神母는 자신의 영역인 선도산에 불전을 짓는 장소를 내어 주고 재력을 제공하는 대신에 主尊三像을 장식하고, 벽에는 53佛·六類聖衆 및 諸天神·五岳神君을 그리도록 하여 산신과 부처 사이에 새로운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불교가 정착하면서 이루어진 무불융합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또 神母가 해마다 봄·가을 두 계절의 10일에는 善男善女를 모아 일체 衆生을 위해 점찰법회를 베푸는 것을 恒規로 삼도록 요구한 것을 통해 삼기산신의 신술이 원광을 통해 점찰법회로 구현되었음을 엿볼 수 있다.

삼기산신, 선도성모와 같은 토착신앙이 무불융합을 통해 佛·聖衆·天神·山神의 순서로 자리매김한 것과는 달리 治病, 除厄을 위한 주술을 행하던 무격들 가운데 재빨리 변신을 하여 불교에 가탁한 주술승들은 정법불교의 구현에 따라 불교로부터 거세될 운명에 처하였음을 다음의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선덕왕 德曼이 병이 들어 낫지 않았을 때 興輪寺 중 法揚이 부름을 받아 치료하였으나 아무런 효험이 없었다. 이때에 密本法師의 덕행으로 소문이 나라 안에 자자하였다. 좌우의 신하들이 법칙과 바꾸기를 청하자 왕이 궁중으로 불러들였다. 밀본은 침실 밖에서 藥師經을 읽었다. 경을 다 읽고 나자 가졌던 六環杖이 침실 안으로 날아 들어가 늙은 여우 한 마리와 법칙을 찢러 뜯아래에 거꾸로 박히게 하자 왕의 병은 바로 나았다. 이때 밀본의 이마 위에 오색의 神光이 나와 보는 사람이 모두 놀랐다.<sup>20)</sup>

선덕왕의 병을 고치려던 흥륜사의 중 법칙이 밀본법사에 의해 뜯아래 늙은 여우와 함께 내동맹이쳐 죽는 것에서 상징화되어 드러나듯이 점차 불교 자체 내에서 주술승들은 정법불교를 익힌 승려들에 의

20) 《三國遺事》 권5, 神呪6 密本摧邪.

해 밀려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삼기산신이 같은 토착신앙의 하나였던 주술승에게 “呪術을 급히 닦으려 하지만 얻는 바는 없다”고 한 예언 그대로였다. 주술승들은 불교에 가탁하였지만 천신이나 악귀가 인간을 지배하고 상벌한다는 의식을 아직 가지면서 신령의 힘을 빌어 治病, 除厄을 위한 주술에 여전히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밀본에 의해 제거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삼기산신이 늙은 여우로 화하였다는 것과 밀본법사의 六環杖에 의해 법척과 함께 뜰 아래 거꾸로 박힌 늙은 여우는 둘 다 같은 여우이지만 전혀 다른 모습이다. 전자의 경우는 원광에 의해 불교에 인도되어 혼이 거두어져 토착신앙의 껍데기를 벗고 부처의 하위신으로 자리 잡게 되는데 반해 후자는 밀본에 의해 내동맹이쳐져 법척과 분리되어 무격(여우)으로 주저앉아버리고 말았다.

### Ⅲ. 맺음말

법흥왕에 의해 불교가 공인된 후 이제 불교를 신봉한다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였다. 전 시대의 종교계의 주역이었던 무격 등의 토착신앙은 불교 공인 이후 국가불교로서, 정교일치의 형태로 확산되어 오는 불교에 압도된 채 각기 불교를 체득하여 그 속에서 자신을 자리매김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토착신앙의 한 축으로서 제정일치시대 제사장 등으로 사회를 주도 하였던 무격의 일부는 불교에 의해 거세되었지만 일부는 무격으로서의 治病, 除厄의 주술을 무기로 삼아 재빨리 머리 깎고 불당을 꾸며 주술승으로 변신하였다. 주술승은 교학과 수행을 통한 불도를 익히기 보다는 주술을 통해 나름대로 신도를 확보하고 있었다.

왕실, 혹은 진골귀족, 육두품 등도 너나 할 것 없이 불교를 받아들이고자 하였다. 대개 출가의 길에 들어선 승려들은 교학에 대한 연구와 함께 自利行을 주로 하는 엄격한 계율을 수행하는 소승불교에 머물러 있었다. 원광 역시 출가하여 삼기산에 들어와 홀로 경전을 읽으면서 자기 수행에 전념하였다. 삼기산신이 원광의 수행이 옳다고 하였지만 실상 6년 동안 원광은 별다른 깨침을 얻지 못한 채 주술을 행하는 중에 의해 크게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다. 삼기산신이 지적한 것처럼 원광은 6년 동안 삼기산에 머물면서 경전을 통해 自利를 위한 수행은 행하였을지언정 利他를 행하는 공덕을 이루지 못함으로써 방황하고 있었다. 그 방황의 한 원인은 삼기산신과 주술승과의 대립으로 나타나는, (원광 내면에서 갈등하는) 원광의 수행방법과 주술승의 수행법이었다. 비록 주술승은 주술에 의지하였지만 중생을 위한 이타의 공적은 나름대로 있었기 때문에 시끌벅적한 분위기였다. 홀로 정법을 펴는 착실한 수행과 함께 불교 교학을 익히고자 하였던 원광은 정념의 방해를 받았고, 삼기산신에 의해 주술승이 죽는 그 순간 이타의 공적을 익혀야 한다는 것을 자각하였다. 그 방법이 중국유학을 통한 도의 체득이었다.

토착신앙의 한 축인 삼기산신은 그 성역 안에 들어온 불교를 익히고자 하는 원광과 무격출신의 주술승을 관망하고 있었다. 불교로부터 사상적 주도권을 빼앗긴 토착신앙으로서는 治病, 除厄을 위한 주술을 갖고 불교에 가탁한 주술승들이 미구에 불교로부터 배척받으리라고 생각하였다. 이에 원광의 수행방법이 옳다고 하면서 주술승의 주술능력으로 인해 마음이 흔들리는 원광을 위해 주술승을 내몰 것을 권하였다. 원광 스스로 그것을 이루지 못하자 신술을 동원해 하룻밤 사이에 蘭若를 무너뜨리고 난후 자리행 위주의 소승율에 머문 원광의 수행의 잘못을 지적하였다. 당시 불교계가 자리행의 소승율로 수행을

하는 한 토착신앙이 그 속에서 생존의 길을 모색할 수 없음을 자각하고 “법사가 이곳에 있으면 自利를 위한 수행은 행하지만 利他를 행하는 공덕은 없을 것이다. 현재에 이름을 높이 들어내지 않으면 미래의 勝果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 어찌 불법을 중국에서 배워 와서 이 나라의 혼미한 무리를 지도하지 않느냐”라고 하여 이타행의 대승불교를 익힐 것을 제시하였다. 또 당시 신라사회가 정교일치의 상태에서 불교가 국가(왕실)불교의 특성을 지니면서 현실정치의 장에서 기능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타행의 대승불교와 아울러 儒術, 즉 유학을 익히도록 계교를 원광에게 알려주었다. 그것은 곧 토착신앙에 기반을 갖고 있으면서 유학을 바탕으로 하여 정치적 출세를 한때 꾀했던 원광이 삼기산에서 6년간 불교를 익히면서 번민하면서 얻어낸 결론이기도 하였다.

11년 만에 중국 유학에서 돌아온 원광은 삼기산신을 찾아가 감사의 뜻을 표했다. 원광이 중국 유학을 통해 삼기산에서의 자리행의 소승율에서 벗어나 이타행의 대승불교를 익혀 귀국함으로써 삼기산신의 토착신앙은 보살계를 받을 수 있었고, 生生相濟의 언약을 통해 불교 속에 자리 잡을 수 있었다. 이것은 토착신앙이 불교계에 압도되면서 대결의 과정 속에서 도태되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소승불교에서 대승불교로의 전환을 유도하면서 그 스스로 살길을 모색하여 나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간 원광에게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삼기산신은 生生相濟의 언약이 이루어짐에 따라 원광의 청에 의해 그 다음날 東天가에 구름을 뚫고 하늘 끝에 접하여 있는 큰 팔뚝으로 나타났다. 그것은 샤머니즘의 세계관에서 천상계, 지상계, 지하계를 연결하는 우주목, 世界樹로서, 천신이 하강하고 천신의 권능을 부여받은 샤만이 天界上昇을 하는 곳이었을 것이다. 팔뚝으로 모습을 보인 삼기산신이 그날 밤 다시 나

타나 자신의 죽음을 예언하고 혼을 보내달라고 부탁하였고, 기약한 날 그 고개에 원광이 가보니漆빛 같이 검은 늙은 여우 한 마리가 혈떡이고 숨을 쉬지 못하다가 죽었다. 그것은 토착신앙이 불교에 포용되면서 죽어가는 검은 늙은 여우 한 마리의 모습을 남긴 채 역사의 저편으로 퇴장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주제어 : 샤머니즘, 주술승, 삼기산신, 원광, 자리행, 이타행, 늙은 여우, 삼국유사, 수이전

## ABSTRACT

## Assimilating process of Buddhism of shamanism looked over through Wonkwang

Kim, Ho-Dong

When it comes to adopting Buddhism of Samguk officially, while Goguryeo and Baekje easily processed it, Silla had a hard time adopting it because the aristocracy were against it. But Yi Cha-don(異次頓) died for his belief and finally he made it. From Buddhism got adopted till now, through the conflict among Mu, nostradamus and Bulseung, they dealt with the conflict between shamanism and Buddhism. But after Buddhism was adopted, they hardly dealt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shamanism and Buddhism. Only Lee Gi Baek(李基白) dealt with separating Wonkwang from shamanism in 'Wonkwang and his philosophy' and recently in 'Gyechamhoe belief of Wonkwang and its meaning' ('Sillasahakbo' 2 Silla History Institute, 2004.12), Wonkwang, who tried to establish Jeongbeop Buddhism Gyohak, rejected incantation Buddhism and got a favorable attitude towards shamanism. But according to the research of the former one, it was much too focused on the aspect that it got to weed out because they repeatedly conflicted, opposed, separated and rejected. In case of the latter one, it seems to overlook that incantation Buddhism was the very one of shamanisms. It's

because it cures diseases and keeps misfortunes away. It means that it is the character from shamanism, so it makes a pretext of shamanism.

After Buddhism got adopted officially by king Beopheung, it became so powerful that it reigned over Silla society. Feeling helpless to reject it, Silla people considered that Buddhism was something necessary that they had to acquire as quickly as they could. It was not the time that shamanism and traditional belief conflicted with Buddhism. It was the very time that each one had to acquire Buddhism and struggle to find the way to survive as a Buddhism country, getting overwhelmed by Buddhism which was spreading in the form of the union of religion and politics. This struggle got to change into incantation Buddhism or Wonkwang went to China for study and as Samgisansin did, it turned into another Buddha. In this sense, it does not deal with the fact that they separates and rejects shamanism because of Buddhism, but this manuscript deals with how shamanism finds its own way to survive.

Keyword : Shamanism, a Buddhist monk who makes an incantation, Samgisansin, Wonkwang, behavior helping himself or herself, behavior helping others, an old fox, Samgugyusa, Sueojeon